

조 인 순

1) 결 론

본 조사는 1977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목포 시내의 각 은행(K. M, C. H, G)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여성 108명과 일부 공장(H. H. N)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원 즉 비 사무직 여성 12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Cornell Medical Index를 적용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20~24세가 75.3%로 수위를 점하고 있었다.
2. 교육정도별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 6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근무년한별 분포는 1년이상~2년미만이 35.6%로 가장 많았다.
4. 각 항목별 비교에서 유의한 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긴장항목(R 항), 호흡기계통(B 항), 부적응항목(M 항), 감정장해항목(L 항), 피부계통(F 항), 근육골격계통(E 항)등의 순위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육체적 및 정신적 항목의 비교에서 육체적영역의 호소에서는 사무직 20.47, 비사무직 21.40이며, 정신적 영역의 호소에서는 사무직 13.06과 비사무직 14.99로 비사무직이 더 높았다.
6. 근무년한별 비교에서 육체적 영역의 호소에서는 근무년한이 길수록 육체적 호소가 높았으며 정신적 영역에서는 비사무직 여성이 근무년한이 길수록 정신적 호소가 낮았다.
7. 연령별 비교는 양쪽군 모두 연령이 많을수록 호소수는 증가하였고, 사무직군보다 비사무직군의 호소가 훨씬 높았다.

2) 제 언

1. 사무직보다 비사무직의 육체적 및 정신적 호소가 일반적으로 높다는 것은 비사무직 여성의 작업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영자들은 공원들의 건강면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면 한다.
2. 근무년한별 및 연령별 비교에서 근무년한이나 연령이 많을 수록 육체적 및 정신적 호소가 비사무직 군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작업의 단순성으로 인한 지루함이나, 진급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작업환경 다양성이나 오락 등의 개발로 정신적인 호소를 줄이도록 노력하였으면 한다.

한 산업장의 재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김천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6집, 1978

최 경 숙

1. 공 상 사 고

(1) 대상자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사고의 양상은 약 18가지이다. 이중 「나이프(Knife) 사용부주의에 의한 상처」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공구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회전 로울러(Roller)에 의한 상처」, 「제품 운반 트럭과의 충돌」이 각각 9건, 「회전하는 나이론 원사에 접촉되었을 때의 손가락 절단」 7건 등이 빈도가 높다.

(2) 조사 대상자의 12.5%가 공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주관적인 사고의 원인은 본인과 타인에 의한 불안전 행동이 40%, 기계설비 불안전 무응답이 각 30%이다. 상해의 종류를 분류해 보면 외상(좌상 40%)이 가장 많고 주로 상지에 상처를 받았다.

한편 공상경험 근로자들의 사고발생 당시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다가 30.0%로 가장 많고 과외근무로 인한 피로 축적, 상사로부터 부당한 질책을 당한 후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등 그외 5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중 위의 공상 경험자들이 사고당시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30.0%와 안전관리부서 집계에 의한 사고원인중 불건강 및 기타의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 14.3%는 산업장 간호원이 이러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근로자를 사전에 발견해 내어 적절한 간호와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3) 공상사고로 인한 결근일수

얼마동안 결근하였는지 기억할 수 없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평균 결근일수는 18일이다. 한편 동회사 기존조사에 의한 '77년 한해동안의 통계결과는 도합 28건의 사고가 발생해 31.9%의 공상 발생율을 보였고 총 264일의 손실일수를 기록하였다.

2. 무상해사고 경험유무와 보고태도

지난 3개월 동안 무상해사고를 경험한 노동자는 전체의 6.9%이었다. 만약 무상해사고가 자신에게 발생한다면 모두 보고 하겠다는 근로자는 24.4%에 지나지 않았고 과반수이상(66.9%) 보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3. 직 업 병

(1) 제특성별로 본 직업병에 대한 염려 유무

직업병 발생에 대해 전체의 59.4%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 그 염려정도에 있어서는 여성(64.6%)이 남성(57.1%)보다 약간정도 심하나 두드러진 차이가 없고 부서별 역시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문자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염려정도는 반비례하였다.

(2) 직업병 경험 유무

조사 대상자의 22.5%(36명)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특수성과 작업환경이 자신에게 신경성 위장병(7명) 및 난청(6명), 그외 7종(17명)등의 직업병이 생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4. 작업환경 및 안전보호구

(1) 작업 환경

대상기업의 근로자가 조업하는데 가장 고통을 느끼는 조건들중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은 여성과 생산부 소속 근로자에서 호소율이 많고 고온작업의 경우는 남성과 공무부에서 높다. 이러한 응답자의 반응은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조건과 근로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들이 제안한 불편조건 개선방안은 첫째, 작업환경을 개선하고(18.1%) 둘째, 안전보호구 착용을 꼭 할것이며(10.6%), 셋째, 휴식시간을 적절히 안배할 것(8.1%)등을 들고 있다.

(2) 안전보호구

조업의 성질로 보아 보호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응답자는 전체의 60% 이상이었으나 이중 실제의 착용정도는 낮았다. 응답자들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1/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구의 성능을 믿을 수 없는데서 연유한 경우는 적고 주로 장착법이 불편한데에 원인이 있다.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전원 착용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장착법이 불편하지 않는 보호구의 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겠다.

일부 산업장의 의무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순천향간전 논문집 제5집, 1979

안 채 순

본 연구는 1978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의 의무실 이용일수 364일 동안에 전북 소재 모방직기업의 산업요원 1,212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실 이용률, 사고나 증상의 발생빈도, 처치, 투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무실에서 처치된 증에는 9,912예로서 일인 평균 8.18회와 일일 평균 27.23명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1) 성별 의무실 이용률을 보면 남성(87.01%, 여성 12.99%)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다.

2) 부서별 의무실 이용률은 사무부(19.50%), 생산부(80.50%)로 사무부보다 생산부가 높았다.

3) 요일별 의무실 이용률은 수요일(15.97%)에 가장 많았고 일요일(9.61%)에 가장 적었다. 사무부, 생산부 모두 일요일이 다른 요일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다른 요일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4) 월별 의무실 이용률에서는 7월(9.39%)에 가장 많았고 12월(6.06%)에 가장 적